

'뜨거운 상징'으로 돌아온 김현문학비

성장기 보낸 '정신의 고향' 목포에서 제막식

5년 전 48세의 나이로 작고한 문학평론가 김현의 정신을 기리는 문학비가 지난 4월 15일 (토) 목포 향토문화관에서 제막됐다. 김암기, 김병익, 김치수 외 44명으로 구성된 '김현문학비 건립위원회'(위원장 김병익)가 주최한 이 제막식에는 김현의 가족과 지기를 비롯해 각지에서 온 문인 70여명이 참가했다.

김현문학비 건립위원회가 발족한 것은 93년 10월, 고인의 정신을 기리는 첫 작업으로 《김현문학전집》 총 16권이 완간된 뒤였다. 건립위원회는 이어 94년 1월 기금 모금을 시작하면서 이곳 목포에 건립장소를 잡았다. 김현의 본래 고향은 전남 진도지만, 8세 때 건너와 성장기를 보낸 목포는 그의 '정신의 고향'이라는 취지에서였다. 그해 3월 젊은 조각가 부부 박정환·신옥주씨와 서예가 서종건씨에게 문학비 제작과 문학비 비명 글씨를 각각 의뢰했으며, 1년 뒤인 95년 3월 문학비 건립과 조경공사를 마무리지었다.

비가 내리던 일기예보와는 달리 행사일의 날씨는 맑았다. 흰 방수막을 씌운 문학비 옆으로 산벚꽃 개나리 영산홍이 만발했고, 우거진 나뭇가지마다 새순이 돋아 있었다. 제막식의 첫머리에서 김병익씨는 인사말을 통해, 생전의 김현이 '지긋지긋한 운명의 끈을 확인'했다고 고백한 바 있는 고향으로 그가 비로소 돌아왔다며 "이것은 매우 아픈, 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표현에 따르면, '뜨거운 상징'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제막식은 오성근씨의 김현 약력 보고와 김치수씨의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제막 순

생전의 김현이 '지긋지긋한 운명의 끈을 확인'했다고 고백한 정신의 고향 목포에서 그의 정신을 기리는 문학비 제막식이 있었다. 문인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모습을 드러낸 그의 조상(彫像)은 살아 있는 듯 생생했다. 문학은 그 어떤 예술보다도 뜨겁게 인간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한다던 김현의 문학정신은 이제 '뜨거운 상징'으로 돌아온 셈이다.

서에 이르러 박정환·신옥주 부부와 차범석, 김병익, 김지하, 최하림 씨 등 십여 명이 방수막을 벗기자 고흥석과 브론즈로 만든 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김병익씨의 인사말대로, "5년 전에 우리 앞을 떠난 육체로서가 아니라, 그의 얼굴을 본뜨고 그의 정서와 정신을 표현하는 차가운 쇠와 돌로" 돌아온 김현이 거기 있었다. "욕망과 고통들이 응어리진 육체를 버린 채 안경을 닦아 다시 끼고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조상(彫像)은, 과장 없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그 조상 앞에 고인의 부인과 두 아들, 동료 문인들이 꽃다발을 놓았다. 최하림씨의 문학비 소개에 이어 정과리씨가 비음(碑陰)의 글을 낭독했다.

"한글로 교육받고 사유한 첫 세대로서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일구고, 4·19의 체험으로



제막식에 참가한 김현의 지기들. 왼쪽부터 정현중 정문길 김주연 오성근 김원일 김현 彫像 김병익의 서우석씨.

자유의 진정한 뜻을 찾아낸 그는, 문학평론가, 불문학자, 서울대 교수로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그는 살아 움직이는 상상력, 자유로운 사유, 섬세한 글쓰기로 우리의 문학과 지성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고통스런 현실 속에서 행복에의 꿈을 쫓는 참된 삶의 길을 보여주었다. 이에 그가 평생 정신의 고향으로 삼아온 이 고장에 삼가 비를 세워 그를 기린다.

나란히 비음으로 새겨진 황지우씨의 시 <비로소 바다로 간 거북이-김현선생 영전에>가 낭송됐다. "김현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가" 하고 축하한 김지하씨를 비롯해 차범석씨, 목포출신 원로화가 김암기씨의 축사가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로 두 조각가와 전 목포시장 정영식씨가 감사패를 증정받고 나와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문학비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사랑했던 가족과 지기들에 둘러싸인 채, 김현의 브론즈 조상은 묵묵하고 희미한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김현은 한 짙막한 평론에서 "'고통의 제스처'는 추하다, '고통스럽게 행복을 생각하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쓴 바 있다. 죽음을 꼭 한 달 앞두고 팔봉문학상을 수상했을 때 그는 이렇게 소감을 썼다.

"...말은 쉬우나, 몸으로 버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몸으로 버티지 않는 한 그 버티는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제가 생각하는 문학은 바로 그러한 '더운 상징'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문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학은 그 어떤 예술보다도 더 뜨겁게 인간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한 강 기자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

- 1 나만이 아는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2 장난꾸러기 꼬마전구
E. 리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3 비탈로의 동물농장
M. 아놀렛띠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4 평화의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5 여덟가지 진짜이야기
E. 산단게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6 보물이 숨겨져 있는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7 천지창조 이야기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8 진주섬 이야기
I.G. 올리바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9 가장 소중한 성탄선물
L.C. 알리만디 지음/노재윤 옮김/3,000원
- 10 하느님, 제 기도 들어보세요
M. 리스트 지음/강성위 옮김/4,000원
- 11 물방울의 추억
E. 드랄라 지음/채운경 옮김/3,000원
- 12 황새와 아기바구니
M. 아놀렛띠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13 사랑을 나누는 꿈, 보로
R.M. 룬디니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14 뇌 속으로의 여행
F.B. 니카씨오 지음/김홍래 옮김/2,500원

- 15 거리의 화가
F.B. 니카씨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16 가난뱅이 조니와 아르니까
E. 라이자르 지음/채운경 옮김/4,000원
- 17 평화의 어린이들
G. 스타스 지음/채운경 옮김/3,000원
- 18 아프리카 동화
아자리안, 커닝햄 엮음/노재윤 옮김/3,000원
- 19 두 임금님
F.B. 니카씨오 지음/채운경 옮김/3,000원
- 20 낡은 자동차
G. 스타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21 코뿔소에게 안경을 씌워 주세요
이윤희 지음/4,000원

- 22 사각형의 세계 [수학 동화]
F.B. 니카씨오 지음/김홍래 옮김/4,000원
- 23 흑인소년 삼미
G. 스타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24 새앙쥐 나라의 올림픽
M. 아놀렛띠 지음/김홍래 옮김/4,000원
- 25 잠자는 사람은 물고기를 낚을 수가 없어요
M. 보트리에리 지음/노재윤 옮김/4,000원
- 우물 속의 보물
L. 코몰리 지음/채운경 옮김/ * 근간 예정
- 환상의 마을에서
E. 올리베로 지음/노재윤 옮김/ * 근간 예정
- 자유를 사랑한 아기곰, 벨라
M. 스트리아베체 지음/채운경 옮김/ * 근간 예정